

# 東醫壽世保元 中 四端論에 對한 研究

尹 泓 植 · 林 逸 圭 · 韓 相 桓

## I . 緒 論

東武 李濟馬 先生은 1894 年에 그의 著書 『東醫壽世保元』을 通하여 人間은 天賦的으로 받은 臟腑虛實이 있고, 이에 따른 喜怒哀樂의 性情이 作用하여 生理現狀을 이룬다고 하였으며, 또 心理, 病理 및 治療에 있어서도 새로운 問題點을 提示하였고, 體質에 適否한 飲食과 養生法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하게 論議되고 있다.

그러므로 四象醫學은 從來의 醫學과는 다른 次元에서 出發되었으며, 東武 李濟馬의 말에 의하면 『내가 醫學經驗이 있는지 數千年後에 나서 옛 사람들이 전해온 著述을 通하여 우연히 四象人의 臟腑生理를 發見하여 從來의 醫學과 같지않은 것을 알고 그 뿌리를 찾은 然後에 枝葉을 取할것ियो, 太少陰陽人의 臟腑가 長短點이 있는 것은 陰陽의 變化로 定해진 天稟이니 만큼, 再論의 餘地가 없다』고하여 四象醫學의 本質과 特異性을 明確하게 말했다.

이에 本人은 東醫壽世保元之中에 一部 原典인 四端論을 이미 出刊된 여러 著書를 參酌하여 詳細히 研究하여 보고자한다

## II . 調查資料 및 研究方法

原文의 研究를 돕기 爲하여 字解, 參考, 名註를 달고 解釋하였다.

가. 原文은 《東醫壽世保元》에 準하였고, 懸吐는 朴의 東醫四象大典과 尹의 四象醫學體質論, 韓의 東醫壽世保元 註釋과 傳來의 懸吐方法을 參考하였다.

나. 字解는 原文의 뜻에 合當한 音과 訓을 取하였다.

다. 字句解釋, 解說은 이미 出刊된 四象醫學 書籍中에서 應用, 引用하였다.

1.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2. 朴爽彦 ; 東醫四象大典
3. 韓東錫 ; 東醫壽世保元註釋
4. 尹吉榮 ; 四象體質醫學論
5. 洪淳用, 李乙浩 ; 四象醫學原論
6. 宋一炳, 李文宰 ; 四象醫學의 四端七情論에 對한 考察, 大韓韓醫學雜誌, 1980
7. 高炳熙 ; 『東醫壽世保元 四端論』中 四情의 作用機轉 및 病理變化에 對한 考察, 1992

## III . 本 論

<原文> 人稟臟理에 有四不同하나 肺大而肝小者를 名曰太陽人이오 肝大而肺小者를 名曰太陰人이오 脾大而腎小者를 名曰少陽人이오 腎大而脾小者를 名曰少陰이라(1. 2. 3. 4)

<解釋> 사람이 타고난 臟腑의 理致에 같지 않는 것에 네 가지가 있는데, 肺가 크고 肝이 작은 사람을 太陽人이라하고, 肝이

크고 肺가 작은 사람을 太陰人이라하며, 脾가 크고 腎이 작은 사람을 少陽人이라 하고, 腎이 크고 脾가 작은 사람을 少陰人이라 한다.<sup>5)</sup>

〈解說〉 四象이란 「兩의 生四象」에서 얻어진 「陰陽說」의 사상이라는 意味를 가지고 있을뿐이다. 다시말해 陰陽說의 符號로 四象이라는 理學의 符號를 借用하여 「人稟臟理」를 說明하는데 東武 四象說의 創造의 一面이 있는것이다.

〈字句解釋〉

- ◎ 人稟臟理 -- 人體臟腑組織의 類型
- ◎ 肺 -- 肺之黨 (胃脘, 舌, 耳, 皮毛)
- ◎ 肝 -- 肝之黨 (小腸, 臍, 鼻, 腰脊, 肉)
- ◎ 太陽, 太陰, 少陰, 少陽 -- 四象의 名稱
- ◎ 脾 -- 脾之黨 (胃, 兩乳, 目, 脊背, 筋)
- ◎ 腎 -- 腎之黨 (大腸, 前陰, 口, 膀胱, 骨)

〈原文〉 人趨心慾에 有四不同하니 棄禮而放縱者를 名曰鄙人이오, 棄義而偷逸者를 名曰愉人이오, 棄智而飾私者를 名曰薄人이오, 棄仁而極慾者를 名曰貪人이니라. 1. 2. 3. 4)

〈解釋〉 사람의 달리는 心慾에 네 가지 같지 않은 것이 있으니, 禮를 버리고 放縱하게구는 사람을 鄙人이라 하고, 義를 버리고 安逸을 꾀하는 사람을 愉人이라 하며, 智를 버리고 남을 속이려 드는 사람을 薄人이라 하고, 仁을 버리고 至極한 慾心을 부리는 사람을 貪人이라 한다.<sup>6)</sup>

〈解說〉 孟子的 仁. 義. 禮. 智의 四端에 根據를 두고 人慾의 四象을 說明하고 있다. 禮 -- 秩序를 維持하기 爲한 公의 手段이다. (太陽人)

- 義 -- 公利公慾을 爲하여 私利私慾을 犧牲한다. (太陰人)
- 智 -- 事物의 完結點 (少陽人)
- 仁 -- 水가 알맞을 때에 發하는 것이다. (少陰人)

〈字解〉

- ◎ 趨 -- 향할 추
- ◎ 棄 -- 버릴 기
- ◎ 愉 -- 흠칠 투
- ◎ 愉 -- 나약할 유
- ◎ 飾 -- 꾸밀 식

〈字句解釋〉

- ◎ 鄙人 -- 言行이 상스러운 사람
- ◎ 愉人 -- 나약한 사람
- ◎ 薄人 -- 輕薄한 사람
- ◎ 貪人 -- 구두쇠같은 貪慾스런 사람

〈原文〉 五臟之心은 中央之太極也요, 五臟之肺脾肝腎은 四維之四象也이니 中央之太極은 聖人之太極이 高出於衆人之太極也요, 四維之四象은 聖人之四象이 旁通於衆人之四象也이니라. 1. 2. 3. 4)

〈解釋〉 五臟의 心은 中央의 太極이요, 五臟의 肺脾肝腎은 四維의 四象이다. 中央의 太極은 聖人の 太極이 높이 衆人の 太極 위에 솟아 있고, 四維의 四象은 聖人の 四象이 衆人の 四象과도 살살이 通해있다.<sup>5)</sup>

〈解說〉 東武의 五臟說은 五行說에 의한 同格의 五臟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心은 中央之太極으로서 肺脾肝腎의 四維를 主宰하는 位置를 占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心爲一身之主宰」라 한 것이다. 東武는 聖凡의 區別을 四維의 四象에 두지 않고 太極에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四象人에는 聖凡의 區別이 있을수 없다. 太極만은 四象 밖에 있으므로 聖人の 太極...心...은 衆人の 위에 우뚝하게 뛰어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聖人이란 性命論에서 「孔子之聖」이라 하였으니 孔子 같은 이를 가리킨 것이거니와 「可以爲堯舜」이라 한 것을 보면 堯.舜도 聖人으로 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凡人이 聖人이 되지 못하는 것은 비록 好善이 無雙하더라도 邪心이 또한 無雙한 까닭이다. 鄙薄貪棼한 凡人이 많음은 이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堯.舜.孔子의 太極은 凡人의 太極위에 高出하지 않을 수 없다.

<字解>

- ◎ 維 -- 뉘 유, 이을 유
- ◎ 旁 -- 넓을 방

<字句解釋>

- ◎ 五臟 -- 臟器만을 가리키지 않고 그 의 一黨을 가리킨다
- ◎ 心 -- 形相과 心性이 一致되는 大概念의 心이다.
- ◎ 太極 -- 「易有太極是生兩儀」이나 陰陽兩儀의 母體
- ◎ 四維 -- 方位說的 四方으로 肺,脾,肝腎을 設定한 것.
- ◎ 旁通 -- 條理가 仔細하여 分明하게 알음

<原文> 太少陰陽之臟局短長은 四不同 中에 有一大同하니 天理之變化也라 聖人與衆人이 一同也요, 鄙薄貪棼之心地淸濁은 四不同中에 有萬不同하니 人欲之闊狹也라 聖人與衆人이 萬殊也이니라. 1. 2. 3. 4)

<解釋> 太少陰陽이 臟局短長에는 네가지 같

지 않은 중에도 한 가지 大同한 點이 있으니 天理의 變化라는 것이다. 聖人이나 衆人이나 다 같은 것이다. 鄙薄貪棼의 心地淸濁에 네가지 같지 않은 중에도 萬가지로 不同한 點이 있으니 이는 人慾의 闊狹 때문인 것이다. 聖人이나 衆人이나 萬가지로 다른 것이다.<sup>5)</sup>

<解説> 四象人の 類型이 天理之變化라 함은 先天의 理를 가리킨 것이다. 人慾의 闊狹은 天理의 變化에 依한 것이 아니므로 流動的이다.

<字解>

- ◎ 闊 -- 넓을 활
- ◎ 殊 -- 다를 수

<字句解釋>

- ◎ 天理之變化 -- 自然의 理致에 따른 陰陽의 變化
- ◎ 心地淸濁 -- 心性의 바탕의 淸廉潔白과 濁穢汚辱이다

<原文> 太少陰陽之短長 變化는 一同之中에 有四偏하니 聖人이 所以希天也요, 鄙薄貪棼之淸濁闊狹은 萬殊之中에 有一同하니 衆人이 所以希聖也이니라. 1. 2. 3. 4)

<解釋> 太少陰陽의 短長變化는 똑같은 중에서도 네 가지로 치우친 點이 있으니 聖人이 하늘을 우러르는 것은 이 까닭인 것이다. 鄙薄貪棼의 淸濁闊狹은 萬가지 다른 중에서도 한 가지 같은 點이 있으니 衆人이 聖人을 우러르는 것은 이 까닭인 것이다.<sup>5)</sup>

<字解>

- ◎ 希 -- 드물 희

<字句解說>

- ◎ 短長變化 -- 四象人類型的 陰陽變化
- ◎ 一同 -- 聖凡一如
- ◎ 希天 -- 至高善에 이르고자 하는 一達 天一聖人の 態度를 가리키는말이다
- ◎ 希聖 -- 衆人은 希聖하는 것이요, 聖人은 「高出於衆人」한것이다.

<原文> 聖人之臟도 四端也요, 衆人之臟도 亦四端也이니 以聖人一四端之臟으로 處於衆人萬四端之中하니 聖人者는 衆人之所樂也요, 聖人之心은 無慾也요, 衆人之心은 有慾也이니 以聖人一無慾之心으로 處於衆人萬有慾之中하니 衆人者는 聖人之所憂也이니라. 1. 2. 3. 4)

<解釋> 聖人の 臟局도 四端이요 衆人の 臟局도 四端이니, 聖人の 한 四端의 臟局으로 衆人の 萬 四端 중에 處하기 때문에 聖人은 衆人들이 즐기는 바가 되는 것이요, 聖人の 마음은 無慾하고 衆人の 마음은 有慾하니 聖人の 한 無慾한 마음으로 衆人の 萬 有慾한 中에 處하기 때문에 衆人들은 聖人の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다. 5)

<解說> 聖凡一如論과 聖凡差等論과 調和를 이룬 句節이다.

<原文> 然即天下衆人之臟理 -- 亦皆聖人之臟理而才能이 亦皆聖人之才能也라, 以肺脾肝腎聖人之才能而自言曰我無才能云者 - 豈才能之罪哉리요, 心之罪也이니라. 1. 2. 3. 4)

<解釋> 그런 즉 天下 衆人들의 臟理도 또한 다 聖人の 臟理로서 才能도 또한 다 聖人の 才能인 것이다. 肺脾肝腎 등 聖人

의 才能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才能이 없다」고 하는 者가 있지만 어찌 才能의 罪일 것인가, 마음의 罪인 것이다. 5)

<解說> 聖인과 衆人은 名目 上의 區分이지 人間의 先天의 差等은 아닌것이다. 臟理가 되었거나 才能이 되었거나 다를 바 없음이다.

<原文> 浩然之氣는 出於肺脾肝腎也요, 浩然之理는 出於心也이니 仁義禮智四臟之氣를 擴而充之即浩然之氣-- 出於此也요, 鄙薄貪檢一心之慾을 明而辨之即浩然之理 -- 出於此也이니라

<解釋> 浩然心氣는 肺脾肝腎에서 나오고 浩然之理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仁義禮智 등 四臟의 氣를 넓혀 充滿하게 한다면 浩然之氣는 거기서 나올것이요, 鄙薄貪檢等 一心의 慾을 分明하게 가려 낸다면 浩然之理는 거기서 나올것이다.

<解說> 肺脾肝腎은 才能이 간직된 곳으로서 浩然之氣는 거기서 나오고, 心은 一身의 主宰者인 만큼 浩然之理를 남게 하는 것인 것이다. 그러므로 氣란 活動의 源泉이요, 理란 是非明辨의 道理인 것이니 仁義禮智와 같은 倫理的 規範은 이를 擴充하므로 浩然之氣와 같은 道義的 勇氣가 거기서 솟아날 것이요 鄙薄貪檢와 같은 心慾은 이를 明辨하여야만 浩然之理와 같은 公明正大한 道理가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字解>

- ◎ 浩 -- 넓을 호
- ◎ 擴 -- 넓힐 확

<字句解釋>

◎ 浩然之氣 --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차 있으며 바르고 강한 큰 元氣인 것이다.

<原文> 聖人之心無慾云者는 非淸淨寂滅如老佛之無慾也라, 聖人之心이 深憂天下之不治故로 非但無慾也라, 亦未暇及於一己之慾也이니 深憂天下之不治而未暇及於一己之慾者 -- 必學不厭而教不倦也이니 學不厭而教不倦者 -- 即聖人之無慾也--라 毫有一 己之慾即非堯舜之心也요, 暫無天下之憂即非孔孟之心也이니라. 1. 2. 3. 4)

<解釋> 聖人の 마음은 慾心이 없다고 이르는 것은 淸淨 寂滅하여 老子나 부처님처럼 慾心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聖人の 마음은 깊이 天下가 다스려지지 않음을 걱정하는 까닭에 但只 慾心이 없는 것이 아니라 自己 自身の 慾心을 거들떠 볼 겨를이 없는 것이다. 깊이 天下가 다스려지지 않음을 걱정하여 自己 自身の 慾心을 거들떠볼 겨를이 없는 者는 반드시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므로 聖人은 慾心이 없다는 것이다. 털끝만큼이라도 自己 自身の 慾心이 있다면 그것은 堯. 舜의 마음이 아니다. 暫時라도 天下를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孔. 孟의 마음이 아닌 것이다. 5)

<解說> 四象人臟理는 天理之變化라 비록 聖凡의 分別없이 同一不變하는 것이지만 鄙薄貪攄의 心慾은 人間의 自律的 克服의 對象이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 人間의 善惡은 그의 臟局에 있는 것이 아니라 仁義禮智를 擴充하고 鄙薄貪攄를 明辨하는 한 人間의 慧知의 實踐에 달려

있는 것이다.

<字解>

- ◎ 寂 -- 고요할 적
- ◎ 非但 -- 다만
- ◎ 厭 -- 싫어할 열
- ◎ 毫 -- 긴털끝 호
- ◎ 暇 -- 겨를 가, 한가할 가

<字句解說>

◎ 淸淨寂滅 -- 淸淨無爲는 老子的 道요 寂滅爲樂은 佛家の 道다.

<原文> 太陽人은 哀性이 遠散而怒情이 促急하니 哀性이 達散即氣注肺而肺益盛이오, 怒情이 促急即氣激肝而肝益削하나니 太陽之臟局이 所以成形於肺大肝小也요, 少陽人은 怒性이 宏抱而哀情이 促急하니 怒性이 宏抱即氣注脾而脾益盛이오, 哀情이 促急即氣激腎而腎益削하나니 少陽之臟局이 所以成形於脾大腎小也요, 太陰人은 喜性이 廣張而樂情이 促急하니 喜性이 廣張即氣注肝而肝益盛이오 樂情이 促急即氣激肺而肺益削하나니 太陰之臟局이 所以成形於肝大肺小也요, 少陰人은 樂性이 深確而喜情이 促急하니 樂性이 深確即氣注腎而腎益盛이오, 喜情이 促急即氣激脾而脾益削하나니 少陰之臟局이 所以成形於腎大脾小也이니라. 1. 2. 3. 4)

<解釋> 太陽人은 哀性은 遠散하지만 怒情은 促急하니 哀性이 遠散하면 氣가 肺로 注入되어 肺는 더욱 盛하고, 怒情이 促急하면 氣가 肝을 激動시켜 肝은 더욱 깎이울 것이니 太陽의 臟局이 肺大 肝小로 形成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少陽人은 怒性은 宏抱하지만 哀情은 促急하니 怒性이 宏抱하면 氣가 脾로 注入

되어 脾는 더욱 盛하고, 哀情이 促急하면 氣가 腎을 激動시켜 腎은 더욱 削이 될 것이니 少陽의 臟局이 脾大 腎小로 成形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太陰人은 喜性は 廣張하지만 樂情은 促急하니 喜性이 廣張하면 氣가 肝으로 注入되어 肝은 더욱 盛하고, 樂情이 促急하면 氣가 肺를 激動시켜 肺는 더욱 削이 될 것이니 太陰의 臟局이 肝大肺小로 成形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

少陰人은 樂性は 深確하지만 喜情은 促急하니 樂性이 深確하면 氣가 腎으로 注入되어 腎은 더욱 盛하고 喜情이 促急하면 氣가 脾를 激動시켜 脾는 더욱 削이 될 것이니 少陰의 臟局이 腎大脾小로 成形이 되는 까닭은 이 때문이다.<sup>5)</sup>

<解説> 四象人의 臟局이 喜怒哀樂의 性情에 의하여 形成됨을 보여주고 있다.

<字解>

- ◎ 注 -- 물댈 주      ◎ 激 -- 지를 격
- ◎ 削 -- 깎을 삭      ◎ 宏 -- 클 퉁
- ◎ 抱 -- 안을 포      ◎ 張 -- 베풀 장

<字句解釋>

- ◎ 哀, 怒, 喜, 樂 -- 人間의 性情중에서도 基本的인 것
- ◎ 性 -- 天賦人性
- ◎ 情 -- 性之動, 性의 活動型

<原文> 肺氣는 直而伸이요, 脾氣는 栗而包이요, 肝氣는 寬而緩이요, 腎氣는 溫而畜이니라. 1. 2. 3. 4)

<解釋> 肺氣는 곧게 뻗고, 脾氣는 밤들처럼 감싸주고, 肝氣는 너그럽되 느리며, 腎氣는 부드럽게 쌓인다.<sup>5)</sup>

<解説>

肺氣의 「直而伸」은 上焦의 上升之力 때문이요,

脾氣의 「栗而包」는 中上焦의 停畜之力 때문이요,

肝氣의 「寬而緩」은 中下焦의 消導之力 때문이요,

腎氣의 「溫而畜」은 下焦의 下降之力 때문이다. (臟腑論 參照)

<原文> 肺以呼하며 肝以吸하나니 肝肺者는 呼吸氣液之門戶也요, 脾以納하며 腎以出하나니 腎脾者는 出納水穀之府庫也이니라. 1. 2. 3. 4)

<解釋> 肺로는 내뿜고 肝으로는 빨아들이니 肝, 肺는 氣液을 呼吸하는 門戶인 것이고 또 脾로는 받아들이고 腎으로는 내보내니 腎, 脾는 水穀을 出納하는 府庫인 것이다.<sup>5)</sup>

<解説>

肺脾肝腎을 氣液의 呼吸機能과 水穀의 出納機能으로 나누었다.

<字句解釋>

- ◎ 氣液 -- 空氣와 血液
- ◎ 水穀 -- 飲食物

<原文> 哀氣는 直升이요, 怒氣는 橫升이요, 喜氣는 放降이요, 樂氣는 陷降이니라. 1. 2. 3. 4)

<解釋> 哀氣는 곧게 오르고, 怒氣는 가로 오르며, 喜氣는 내치듯 떨어지고, 樂氣는 틀방 떨어진다.<sup>5)</sup>

<解説> 四象說에서 喜怒哀樂의 概念은 肺脾

肝腎의 生理的 ... 陰陽說的 ... 機能에 依하여 說明하여 다음 表를 成立할 수 있다.

肺 氣	直而伸	脾 氣	栗而包
哀 氣	直 升	怒 氣	橫 升
肝 氣	寬而緩	腎 氣	溫而畜
喜 氣	放 降	樂 氣	陷 降

<原文> 哀怒之氣는 上升이요, 喜樂之氣는 下降이니 上升之氣가 過多即下焦가 傷이요, 下降之氣가 過多即上焦가 傷이니라. 1. 2. 3. 4)

<解釋> 哀怒의 氣는 上升하고 喜樂의 氣는 下降하니 上升하는 氣가 過多하면 下焦가 傷하고, 下降하는 氣가 過多하면 上焦가 傷한다. 5)

<解說> 上升의 陽이 過多하면 下焦가 陰虛하게 되고, 下降의 陰이 過多하면 上焦가 陽虛할 것이다.

<字句解釋>

- ◎ 上焦 -- 肺.脾 二臟
- ◎ 下焦 -- 肝.腎 二臟

<原文> 哀怒之氣가 順動即 發越而上騰하고 喜樂之氣가 順動即緩安而下墜하나니 哀怒之氣는 陽也라 順動即而上升하고 喜樂之氣는 陰也라 順動即順而下降이니라. 1. 2. 3. 4)

<解釋>

哀怒之氣는 順動하면 밖으로 풍기면서 위로 오르고, 喜樂之氣는 順動하면 느릿느릿 차분히 아래로 떨어진다. 哀怒之氣는 陽이니 順動하면 順하게 上升하고, 喜樂之氣는 陰이니 順動하면 順하게 下降한다. 5)

<解說> 哀怒喜樂의 中等을 順動이라 한것은 性之動으로서의 性情의 活動型을 強調하기 爲한 것이다.

<字解>

- ◎ 越 -- 넘을 월
- ◎ 騰 -- 달릴 등
- ◎ 墜 -- 떨어질 추

<字句解釋>

- ◎ 發越 -- 빠른 모양, 기상이 뛰어난.

<原文> 哀怒之氣가 逆動即暴發而并於上也요 喜樂之氣는 逆動即 浪發而并於下也이니 上升之氣가 逆動而并於上即肝腎이 傷하고 下降之氣가 逆動而并於下即脾肺가 傷이니라. 1. 2. 3. 4)

<解釋> 哀怒之氣는 逆動하면 별안간 뛰어나면서 한꺼번에 위로 오르고, 喜樂之氣는 逆動하면 물결출렁거리듯 한꺼번에 아래로 내려갈 것이다. 上升하는 氣가 逆動하면서 한꺼번에 위로 오르면 肝·腎이 傷하고, 下降하는 氣가 逆動하면서 한꺼번에 아래로 떨어지면 脾·肺가 傷할 것이다. 5)

<字解>

- ◎ 并 -- 아우를 병
- ◎ 浪 -- 함부로 쓸 랑

<字句解釋>

◎ 逆動 -- 喜怒哀樂의 不中等을 逆動이라 한다.

<原文> 類起怒而類伏怒即腰脇이 類迫而類蕩也이니 腰脇者는 肝之所住着處也이니 腰脇이 迫蕩不定即肝其不傷乎아 乍發喜而乍收喜即胸腋이 乍闊而乍狹也이니 胸腋者는 脾之所住着處也이니 胸腋이 闊狹不定即脾其不傷乎아 忽動哀而忽止哀即脊曲이 忽屈而忽伸也이니 脊曲者는 腎之所住着處也이니 脊曲이 屈伸不定即腎其不傷乎아 屢得樂而屢失樂即背顛... 暴揚而暴抑也이니 背顛者는 肺之所住着處也이니 背顛... 抑揚不定即肺其不傷乎아. 1. 2. 3. 4)

<解釋> 자주 성을 냈다 가라앉았다 하면 腰脇이 자주 죄었다 풀렸다 할 것이며, 腰脇은 肝이 붙어 있는 곳이니 腰脇이 죄었다 풀렸다 安定을 못얻으므로 肝이 傷하지 않겠는가, 別안간 기뻐했다가 別안간 기쁨을 거두면 胸腋이 別안간 넓혀졌다가 別안간 좁혀질 것이며, 胸腋은 脾가 붙어있는 곳이니 胸腋이 別안간 넓혀졌다가 別안간 좁혀져 安定을 못얻으므로 脾가 傷하지 않겠는가, 문득 슬퍼했다가 문득 슬픔을 그치면 脊曲이 문득 굽었다가 문득 펴질 것이며, 脊曲은 腎이 붙어있는 곳이니 脊曲이 굽었다 폈다 安定을 못얻으므로 腎이 傷하지 않겠는가, 몇 번이고 즐거웠다가 몇 번이고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背顛가 갑자기 들렸다가 갑자기 억눌릴 것이며, 背顛는 肺가 붙어있는 곳이니 背顛가 들렸다가 억눌려 安定을 못얻으므로 肺가 傷하지 않겠는가. 5)

<解說> 喜怒哀樂의 逆動을 論하면서 肺脾肝

腎의 四臟에 끼치는 影響만을 論하고 있다. 이것은 性情과 生理와의 關係를 強調하기 爲해서인 것이다.

<字解>

◎ 類 -- 자주 빈 ◎ 蕩 -- 방탕할 탕  
◎ 住 -- 거처할 주 ◎ 乍 -- 잠깐 사  
◎ 忽 -- 깜짝할 홀 ◎ 屢 -- 여러 루  
◎ 顛 -- 이마툭블거질 추

<字句解釋>

◎ 類, 乍, 忽, 屢 -- 喜怒哀樂의 逆動之象이다.  
◎ 腰脇 -- 肝의 部位  
◎ 胸腋 -- 脾의 部位  
◎ 脊曲 -- 腎의 部位, 腰脊下인 것이다.

<原文> 太陽人이 有暴怒深哀하니 不可不戒요, 少陽人이 有暴哀深怒하니 不可不戒요, 太陰人이 有浪樂深喜하니 不可不戒요, 少陰人이 有浪喜深樂하니 不可不戒이니라. 1. 2. 3. 4)

<解釋> 太陽人에게는 거치른 노여움과 깊숙한 슬픔이 있으니 不可不警戒해야 한다. 少陽人에게는 쏟아지는 슬픔과 깊숙한 노여움이 있으니 不可不警戒해야 한다. 太陰人에게는 설레는 즐거움과 깊숙한 기쁨이 있으니 不可不警戒해야 한다. 少陰人에게는 출렁거리는 기쁨과 깊숙한 즐거움이 있으니 不可不警戒해야 한다. 5)

<解說> 暴怒, 暴哀, 浪樂, 浪喜는 逆動한 哀怒喜樂의 情이니 逆傷의 原理에 依하여 太陽人의 暴怒는 肝傷하고, 少陽人의 暴哀는 腎傷하며, 太陰人의 浪樂은 肺傷하고 少陰人이 浪喜는 脾傷한다.

深哀. 深怒. 深喜. 深樂은 過多한 哀怒喜樂의 性이니 逆傷의 原理에 依하여 太陽人の 深哀는 腎虛하고, 少陽人の 深怒는 肺虛하며, 太陰人の 深喜는 脾虛하고, 少陰人の 深樂은 肺虛하다. 그러므로 太陽人の 暴怒深哀는 肝傷腎虛하고, 少陽人の 暴哀深怒는 腎傷肝虛하며, 太陰人の 浪樂深喜는 肺傷脾虛하고, 少陰人の 浪喜深樂은 脾傷肺虛할 것이다.

〈原文〉 臯陶曰都라 在知人하며 在安民하니 이다. 禹曰吁라 威若時할든 惟帝두 其難之러시니 知人即哲이라 能官人이며 安民即惠라. 黎民이 懷之하리니 能哲而惠면 何憂乎驩兜며 何遷乎有苗며 何畏乎巧言令色孔壬이리오. 1. 2. 3. 4)

〈解釋〉 臯陶는 말하기를 「도대체 사람을 앞에 있고 百姓들을 便安하게 함에 있습니다.」 한即 禹는 말하기를 「대체로 그렇다면 임금님께서도 이를 어렵게 여기셨으니 사람을 알면 明哲한 것이니 능히 사람에게 베풀을 줄 것이요, 百姓을 便安하게 한다면 恩惠로운 것이라 철없는 百姓들은 그를 따를 것이니 능히 明哲하고도 恩惠로우면 어찌 驩兜를 두려워할 것이며, 어찌 有苗를 귀양보낼 것이며, 말재주에 낫빰 좋은 孔壬을 두려워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5)

〈字解〉

- ◎ 臯 -- 언덕 고
- ◎ 吁 -- 탄식할 우
- ◎ 威 -- 다 함
- ◎ 哲 -- 밝을 철
- ◎ 黎 -- 검은 려
- ◎ 懷 -- 품을 회
- ◎ 驩 -- 말아름 환
- ◎ 兜 -- 투구 두
- ◎ 遷 -- 옮길 천
- ◎ 巧 -- 잘할 교

〈字句解釋〉

- ◎ 臯陶 -- 순임금의 法務大臣
- ◎ 黎民 -- 검은머리 百姓들

〈原文〉 三復大禹之訓而欽仰之 曰帝堯之喜怒哀樂이 每每中節者는 以其難於知人也요, 大禹之喜怒哀樂이 每每中節者는 以其不敢輕易於知人也라, 天下喜怒哀樂之暴動浪動者는 都出於行身不誠而知人不明也이니 知人은 帝堯之所難而大禹之所吁也即 其誰沾沾自喜乎아 蓋亦益反其誠而必不可輕易取捨人也이니라. 1. 2. 3. 4)

〈解釋〉 세 번 禹王의 訓話를 되풀이한 후 이를 우러러 받들면서 말하기를 「堯임금의 喜怒哀樂이 항상 조심한신것은 사람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요, 禹王의 喜怒哀樂이 매양 節에 맞도록 하는 것은 감히 사람 알기를 가볍게 여길 수 없기 때문이다, 天下 사람들의 喜怒哀樂이 거칠거나 설레는 것은 도대체 行身을 誠實하게 하지 않거나 사람을 아는데 明哲하지 못하거나 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堯임금도 어렵게 여긴 것이요 禹王도 歎息한 것이니 그 누가 輕率하게 스스로 滿足할 것인가, 대체로 더욱 더 自己의 精誠을 도리켜 보면서 사람을 골라 쓰는 일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5)

〈解說〉 喜怒哀樂의 暴動浪動을 警戒하는 귀절로, 東武는 暴動浪動의 原因을 行身不誠과 知人不明에 두고 있으니 行身不誠은 行이고 知人不明은 知로서 性命論의 知行과도 相應하는 귀절이며, 喜怒哀樂의 中節論과 誠身論은 中庸思想과 直結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中節과 誠身은 倫理的 善行의 基準으로서 儒敎倫理想

의 根幹이 됨은 다시 말할 나위도 없다.

<字解>

- ◎ 欽 -- 공경할 흠
- ◎ 仰 -- 사모할 앙
- ◎ 誰 -- 누구 수
- ◎ 沾 -- 젖을 철

<字句解釋>

- ◎ 三復大禹之訓 -- 論語에 있는 三復白圭의 詩句를 말함. 「白圭之玷 尚可磨也, 斯言玷 不可爲也」

<原文> 雖好善之心이나 偏急而好善即好善이 必不明也요, 雖惡惡之心이나 偏急而惡惡即惡惡이 必不周也라, 天下事는 宜與好人做也이니 不與好人做即喜樂이 必煩也요, 天下事는 不宜與不好人做也이니 與不好人做即哀怒益煩也이니라. 1. 2. 3. 4)

<解釋> 비록 好善하는 마음일지라도 偏急하게 好善하면 好善함이 반드시 分明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惡惡하는 마음일지라도 偏急하게 惡惡하면 惡惡함이 반드시 두루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 일은 好인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好인과 함께 하지 않으면 喜樂이 반드시 번거로울 것이다. 이 세상 일은 好人이 아닌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은 좋지 않다. 好人이 아닌 사람과 함께 한다면 哀怒는 더욱 번거로울 것이다. 5)

<字解>

- ◎ 做 -- 지을 주

<字句解釋>

- ◎ 偏急 -- 逆動之象, 失中之象
- ◎ 好人 -- 好善惡惡之人

<原文> 哀怒는 相成하며 喜樂이 相資하나니

哀性이 極即怒情이 動하고 怒性이 極即哀情이 動하고 樂性이 極即喜情이 動하고 喜性이 極即樂情이 動이니 太陽人이 哀極不濟即忿怒가 激外하고 少陽人이 怒極不勝即悲哀가 動中하고 少陰人이 樂極不成即喜好가 不定하고 太陰人이 喜極不服即修樂이 無厭하나니 如此而動者는 無異於以刀로 割臟이라 一次大動이면 十年難復이니 此는 死生壽夭之機關也이니 不可不知也이니라. 1. 2. 3. 4)

<解釋> 哀怒는 서로 이륙하고 喜樂은 서로 돕나니 哀性이 至極하면 怒情이 動하고, 怒性이 至極하면 哀情이 動하며, 樂性이 至極하면 喜情이 動하고, 喜性이 至極하면 樂情이 動한다, 太陽人이 哀性이 至極하여 그치지를 못하면 忿怒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少陽人이 怒性이 至極하여 이겨내지 못하면 悲哀가 가슴 깊이 서리며, 少陰人이 樂性이 至極하되 다스려지지 못하면 喜好가 차분하지 못하고, 太陰人이 喜性이 至極하여 가라앉지 않으면 修樂이 끝이 없을 것이다. 이렇듯 흔들리는 者는 칼날을 세워 창자를 끊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한 번 흔들리면 十年을 두고도 回復하기 어려운 것이니 이는 死生과 壽夭가 정해지는 機關인지라 不可不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5)

<解說> 從來의 陰陽설에 의하면 「陽極生陰 陰極生陽」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同陽相成 同陰相資함이 從來의 說과 區別되는 점이다.

<字解>

- ◎ 修 -- 사치할 치
- ◎ 割 -- 벨 할
- ◎ 夭 -- 재앙 요, 일찍죽을 요

〈原文〉 太少陰陽之臟局短長은 陰陽之變化也라. 天稟之已定은 固無可論이어나와 天稟已定之外에 又有短長而不全其天稟者即人事之修不修而命之傾也이니 不可不慎也이니라. 1. 2. 3. 4)

〈解釋〉 太少陰陽의 臟局短長은 陰陽이 變化한 것이니 天稟에 따라 이미 決定된 바는 본시 論及할 것도 없으려니와 天稟에 따라 이미 決定된 것 외에도 또한 短長이 있어서 그렇듯 天稟이 완전하지 못한 者는 人事의 修不修에 따라 命數도 左右될 것이니 不可不 삼가야 할 것이다. 5)

〈解說〉 四象人의 臟腑類型은 그것이 비록 陰陽變化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미 決定論的인 面과 非決定論的인 面의 두 가지가 있는것이다.

〈字句解釋〉

- ◎ 天稟 -- 先天的 稟賦
- ◎ 人事 -- 後天的 事實

〈原文〉 太陽人怒는 以一人之怒而怒千萬人하나니 其怒이 無術於千萬人即必難堪千萬人也요, 少陰人喜는 以一人之喜而喜千萬人하나니 其喜는 無術於千萬人即必難堪千萬人也요, 少陽人哀는 以一人之哀而哀千萬人하나니 其哀는 無術於千萬人即必難堪千萬人也요, 太陰人樂은 以一人之樂而樂千萬人하나니 其樂이 無術於千萬人即必難堪千萬人也이니라. 1. 2. 3. 4)

〈解釋〉 太陽人의 怒情은 한 사람의 怒情으로도 千萬人을 怒하게 할 것이니 그의 怒情이 千萬人을 다룰 方法을 모른다면 반드시 千萬人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少陰人의 喜情은 한 사람의 喜情으

로도 千萬人을 기쁘게 할 것이니 그의 喜情이 千萬人을 다룰 方法을 모른다면 반드시 千萬人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少陽人의 哀情은 한 사람의 哀情으로도 千萬人을 슬프게 할 것이니 그의 哀情이 千萬人을 다룰 方法을 모른다면 반드시 千萬人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太陰人의 樂情은 한 사람의 樂情으로도 千萬人을 즐겁게 할 것이니 그의 樂情이 千萬人을 다룰 方法을 모른다면 반드시 千萬人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5)

〈解說〉 後天的 命數가 性情의 調律에 左右됨을 強調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字解〉

- ◎ 術 -- 재주 술
- ◎ 堪 -- 견딜 감

〈原文〉 太陽少陽人이 但恒戒哀怒之過度而不可強做喜樂하야 虛動不及也이니 若強做喜樂而煩數之即喜樂이 不出於眞情而哀怒가 益偏也요, 太陰少陰人이 但恒戒喜樂之過度而不可強做哀怒하야 虛動不及也이니 若強做哀怒而煩數之即哀怒가 不出於眞情而喜樂이 益偏也이니라. 1. 2. 3. 4)

〈解釋〉 太陽. 少陽人은 恒常 오직 哀怒의 과도함을 경계해야 하지만 억지로 喜樂을 꾸며대어 허둥지둥 뒤따르지 못하게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억지로 喜樂을 꾸며대면서 뒤숭숭하게 그 일이 잦으면 喜樂이 眞情에서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哀怒도 더욱 편벽되어질 것이다. 太陰. 少陰人은 항상 오직 喜樂의 과도함을 경계해야 하지만 억지로 哀怒를 꾸며대어 허둥지둥 뒤따르지 못하게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만약 억지로 哀怒를 꾸

며대면서 뒤숭숭하게 그 일이 잦으면 哀怒가 眞情에서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喜樂도 더욱 편벽되어질 것이다.<sup>5)</sup>

<解説> 陽人은 哀怒의 過度함을 경계한 것은 同陽相成하기 때문이요, 陰人이 喜樂의 過度함을 경계한 것은 同陰相資하기 때문이다. 이는 過多에 따른 失中의 警戒인 것이다.

<字句解釋>

◎ 虛動 -- 眞實의 反, 곧 無實의 動

<原文> 喜怒哀樂之未發을 謂之中이요, 發而皆中節을 謂之和이니 喜怒哀樂未發而恒戒者는 此非漸近於中者乎아 喜怒哀樂已發而自反者는 此非漸近於節者乎아. (1. 2. 3. 4)

<解釋> 喜怒哀樂이 아직 들어나지 않은 것을 일러 中이라 하고, 들어나되 모든 節에 알맞은 것을 일러 和라 한다. 喜怒哀樂이 들어나지 않았는데도 恒常 警戒하는 者는 차츰 中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 또 喜怒哀樂이 이미 들어나고서 스스로 反省하는 者는 차츰 節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sup>5)</sup>

<字句解釋>

- ◎ 中 -- 行知的 無過不及
- ◎ 和 -- 中の 結果로서 이루어진 合一의 境地
- ◎ 節 -- 節度, 禮節의 節

喜怒哀樂의 性情이 人稟臟理의 形成에 決定的 要因이 된다고 보았으며, 喜怒哀樂의 性情이 各其 肺脾肝腎 臟局의 大小를 形成하는 所以에 對해 說明하고 있는데 그러한 機轉은 肺脾肝腎之氣와 喜怒哀樂之氣의 氣動論的 相合作用에 依해 이루어지며, 太少陰陽人의 體型과 性情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 太陽人 -- 哀性이 많은데 肺大하여, 腦樞의 氣勢가 盛壯하므로 哀氣는 頭腦로 直升하게 된다.
- ㉡ 少陽人 -- 怒性이 많기 때문에 胸膈이 頭腦보다 盛壯하기 때문에 怒氣의 흐름은 胸膈에서 멈추고 더 이상 上升하지 않는다.
- ㉢ 太陰人 -- 臍腹이 盛壯하므로 喜氣의 흐름은 臍에서 멈추고 더 이상 下降하지 않는다.
- ㉣ 少陰人 -- 臍腹보다 相對的으로 小腹이 盛壯하므로 樂氣는 臍를 지나 小腹으로 直下降하는 것이다.

또한, 喜怒哀樂이 各各 上下로 升降하는 氣를 作用 시킨다고 보아 哀怒之氣는 上升하여 下焦를 傷하게 하고, 喜樂之氣는 下降하여 上焦를 傷하게 되며, 喜怒哀樂之氣는 升降한다고 보는 外에 喜怒哀樂의 性은 人體의 表氣를 傷하게 하고 喜怒哀樂의 情은 人體의 裏氣를 傷한다고 보았다.

## V. 結 論

喜怒哀樂의 順動之氣와 逆動之氣에 依해서 性情이 이루어진다. 卽 四端論은 人稟臟理의 四元構造的 原理가 哀怒喜樂의 性情에 依하여 先天的으로나 後天的으로 支配되고 있음을 說明해 주고 있다.

喜怒哀樂이 肺脾肝腎과 더불어 陰陽論의 變化에 依하여 形成된다는 事實은 四象說의 가장 緊要한 要諦가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 天道와 人間과의 生成關係를 論하고 繼續하여 人間臟腑의 先後天性和 知行的 善惡으로 因하여 人道는 結果的으로 墮落된다는 것을 原則的인 骨子を 論했다.

간략히 결론을 내리면 性命論에서는 四象의 四元構造的 原理가 提示되었고 本 四端論에서는 心慾에 의한 四情의 作用에 의해 이 原理가 四象人論으로 展開되었다. 그리하여 四象人論은 臟理論과 心性論의 두 갈래로 나누어진다. 그러므로 四端論은 人物類形論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1. 李濟馬 ; 東醫壽世保元, 서울, 杏林書院, 1979.
2. 朴爽彦 ; 東醫四象大典, 서울, 醫道韓國社, 1977.
3. 韓東錫 ;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誠理會出版社, 1967.
4. 尹吉榮 ; 四象體質醫學論, 서울, 明寶出版社, 1986.
5. 洪淳用, 李乙浩 ; 四象醫學原論, 서울, 杏林出版社, 1979.
6. 宋一炳, 李文宰 ; 四象醫學의 四端七情論에 對한 考察, 大韓韓醫學雜誌, 1980.
7. 高炳熙 ; 『東醫壽世保元 四端論』中 四情의 作用機轉 및 病理變化에 對한 考察, 1992.